

저자 (Authors)	李基白
출처 (Source)	창작과비평 11(3) , 1976.9, 53-66 (14 pages) CREATION&CRITICISM 11(3) , 1976.9, 53-66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창비 Changbi Publish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36385
APA Style	李基白 (1976).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창작과비평 , 11(3), 53-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4 11: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李 基 白

1. 머리말

필자는 일찌기 1970년 3월 震檀學會에서 주최한 제 1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움에서 本稿와 같은 제목으로 口頭發表를 한 바가 있고, 그 요지가 『震檀學報』 36輯(1973. 10)에 게재되었다. 그것은 원고지 20여매 정도의 극히 간략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허락된다면 좀 상세히 논해볼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토론에서 질의에 일일이 회답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여 왔었다. 本稿를 새삼스러이 초하게 된 이유는 주로 그러한 데에 있다.

모든 역사적 事實들이 그러하긴 하지만, 특히 史學書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니는 歷史的 의의와 現代의 의의는 크게 다르다. 가령 著述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던 것이라도 현대에는 이렇다 할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되는 경우도 또한 있는 것이다. 물론 저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 또 단일한 歷史書에 있어서도 저술 당시에 중요시되던 측면이 현대에는 도리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던 측면이 도리어 현대에서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가려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강조해 말하자면 그러한 思考方法은 역사가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고방식을 역사가들 자신이 무시하고 양자를 뒤범벅해서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필자는 이 점

을 분명히 가려서 『三國遺事』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도록 노력해볼까 한다.

그리고 『三國遺事』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각도에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주로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역사적 의의나 현대적 의의는 곧 史學史에 있어서의 역사적 의의요 현대적 의의가 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三國遺事』가 지니는 史書로서의 성격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史書로서의 三國遺事

『三國遺事』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三國史記』와 비교해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 두 史書는 150년 가량의 간격을 두고 저술된 우리나라 古代史에 관한 史書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¹⁾

우선 『三國史記』가 王命을 받들고 金富軾 이하 10여명의 편찬위원들이 편찬한 正史였던 데 대해서, 『三國遺事』는 一然이라는 개인이 편찬한 私撰書였다. 이 점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體裁를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즉 『三國史記』는 중국에 있어서 正史를 편찬하는 표준적 체재인 紀傳體를 취하게 하였으나, 『三國遺事』는 저자의 관심의 각도에 따라서 자유로이 主題를 선택할 여지가 더 많이 허락되는 체재를 갖추게 된 것이다. 『三國遺事』의 체재를 무어라 불러야 좋은 것인지를 필자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저자 개인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극히 자유로운 형식의 史書類인 것만은 분명하다.²⁾ 이것이 우선 『三國遺事』가

1)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비교는 崔南善씨에 의해 시도된 이래(『三國遺事解題』, 啓明 18, 1927; 新訂三國遺事, 1941, pp.8~9)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李佑成씨는 이 양자의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비교는 큰 의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第1回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움 討論速記錄, 震檀學報 36, 1973, p. 168)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역사와 천학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논한다거나, 혹은 또 서양의 中世와 近代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논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될 듯한데, 이것은 꼭 수긍이 되지 않는다.

2) 崔南善씨는 이를 『시방 新聞의 雜報나 事件의 漫錄과 같은 것을 모은 書類로 보면 可할』 것이라고 하였다.(上記解題 p. 2) 이에 따르면 遺事類는 著者 개인의 관심이 두드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최근 金泰永씨도 필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三國遺事에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慶熙史學 5, 1974, p. 87)

지니는 첫째 특징이다.

『三國遺事』의 篇目 중에는 중국의 梁·唐·宋 三高僧傳의 체재를 방불케 하는 것들이 있다. 이에 근거해서 『三國遺事』가 중국의 三高僧傳의 체재를 따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 一然이 중국의 三高僧傳에서 篇目を 취해온 대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塔像과 같은 편목은 중국 高僧傳에는 없다. 게다가 佛教關係가 아닌 史話를 편집해놓은 편목이 王曆과 紀異의 둘이 있으며, 그 분량은 전체의 半이나 된다. 그러므로 『三國遺事』가 중국의 高僧傳들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譯經 같은 편목이 빠지기 때문에 10科의 數를 채우기 위하여 王曆이나 紀異를 첨가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따르기 힘들다. 『三國遺事』는 一般史話나 佛教史話나를 가리지 않고, 저자 一然의 관심이 가는 사화들을 수집하여 이를 적절히 분류 편집하였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물론 『三國史記』도 일정한 목적 밑에 記事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편찬자들의 해석을 가미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正史로서의 성격상 왕실 중심, 통치자 중심의 史料가 주된 편집 대상이 되었다. 『三國史記』에서 민중 관계 사료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三國遺事』는 그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귀족이나 민중이나 간에 一然은 아무런 제약 없이 관심의 대상이 된 사료들을 수집하여 수록하였다.⁴⁾ 이 점에서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에 비하여 주제나 사료의 선정이 훨씬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와는 달리, 인용된 사료와 저자의 의견과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三國史記』는 극히 적은 분량인 史論을 뺀다면 어디까지가 사료이고 어디부터가 편찬자의 의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서술방법을 취하였다. 원칙적으로 『三國史記』가 既存史料의 편찬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때로 필요에 따라서 本文의 서술자재를 편찬자의 목적에 맞추어 修正加筆하고 있다. 이것은 『海東高僧傳』이나 『樸翁稗說』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이에 대해서 『三國遺事』는 그와는 다른 독특한 서술방법을 취하고 있다. 가령 紀異篇의 첫 條目인 古朝鮮條를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魏書·古記·舊唐書 裴矩傳의 세 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3) 閔泳珪, 「三國遺事」(『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년 1월호 附錄, p. 88) 및 上記 討論速記錄.(p. 169)

4) 이 점을 강조한 것이 金泰永씨인데, 씨는 『三國遺事』가 국가와 왕권에 비중을 크게 두고는 있으나, 한편 『강렬한 庶民의 生活意識으로써 그 내용을 집전하고 있음이 큰 특색이다』라고 하였다.(上記論文 p. 88)

(가)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천년 전에 檀君王儉이 있어서 都를 阿斯達에 세우고 經에 無葉山이라 하였고 또 白岳이라 하였다.…………』

(나) 古記에 이르기를 『옛적에 桓囚^{帝釋을 이의 庶子 桓雄이}…………』

(다) 唐 裴矩傳에 이르기를 『高麗는 본래 孤竹國^{지금의 海州}인데……』

즉 古朝鮮條를 구성하는 (가)·(나)·(다)의 세 부분은 곧 세 인용문이다. 一然은 자신의 의견을 挾註로 기입하여 인용문과는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원칙은 대개 관철되고 있다.⁵⁾ 그러나 때로 一然은 자기의 의견을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것이 挾註로써 만족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런 때에도 一然은 그것이 자기의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두곤 했다. 그 하나의 예를 卷3 輿法篇의 阿道基羅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가) 新羅本記 第4에 이르기를 『第19 訥祗王 때에 沙門 墨胡子가 高麗로부터 一善郡에 이르렀는데, 郡人 毛禮^{혹은 毛祿으로}가 집안에 掘室을 만들고 安置하였다.…………』

(나) 我道本碑를 살피건대, 이르기를 『我道는 高麗人이다. 어머니는 高道寧인데…………』

(다) 이에 의하건대 本記와 本碑의 二說이 서로 어긋나서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다.

(라) 일찌기 이를 試論하건대(嘗試論之) 梁·唐의 二僧傳 및 三國本史가 모두 高句麗·百濟 2國의 佛敎의 시작을 실었는데…………

(마) 또 元魏(後魏)의 釋曇始^{혹은 惠始라} 傳을 살피건대, 이르기를 『始는 關中人인데 出家한 이후 많은 異迹이 있었다.…………』

(바) 論議하여 말하건대(議曰) 曇始는 大元末에 海東에 와서 義熙 初에 關中으로 돌아왔은즉 여기에 머물기 10여년이었으니 어찌 東史에 기록이 없겠는가……

(사) 讚하여 이르기를…………

이에 의하면 (가)는 『三國史記』 新羅本紀로부터의 인용이고, (나)는 지금의 망실된 「我道本碑」의 인용이다. 그리고 이어 (다)에서 위의 두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一然의 의견이다.

5) 板刻을 할 때에 挾註가 本文 속에 잘못 넣어진 곳도 있다. 가장 卷2 紀異篇 文虎王法敏條의 高藏王에 대한 註가 그러하다. (李丙焄, 『譯註三國遺事』, 1973, p. 233 註6 참조)

더그므로 여기서부터 一然은 자기의 견해를 지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차이의 지적보다도, (라)의 <嘗試論之> 이하는 바로 一然이 신라 불교 初傳의 인물과 시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낸 당당한 考證이고, 그 결론은 현대의 역사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명쾌한 卓說이다. 이어 一然은 釋曇始傳을 인용하고(마),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바). 마지막 讚(사)은 역시 一然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에 그는 <嘗試論之>·<議曰> 등으로 분명히 자기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三國遺事』의 편찬은 典據를 밝혀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⁶⁾

다만 유감인 것은 本文의 인용문 중에는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一然의 편찬방침과 어긋나는 이러한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의 원칙이 처음부터 一然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필시 당시에는 거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고, 따라서 너무 자주 출처를 밝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한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三國遺事』를 저술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결과 一然은 자연히 많은 사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三國遺事』의 세째 특징이다. 그가 수집한 사료들 중에는 甘山寺造像記 같은 金石文이 있다. (卷3 塔像篇 南月山條) 그 挾註에 『글은 그 뜻이 분명치 않으나 단지 古文을 보존할 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남이 베껴놓은 造像記를 다시 베낀 느낌도 있기는 하나, 아마 그가 직접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직접 각처의 遺蹟을 답사한 觀察記가 나오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가령 一然은 경주 皇龍寺址에 있었다는 迦葉佛宴坐石에 대하여,

- 6) 중국의 遺事類 史書들이 역시 典據를 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三國遺事』의 이러한 방법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高柄翹씨의 의견도 있다. (上記 討論速記錄 p. 172) 그러나 一然은 典據를 제시하지 않는 저술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典據를 밝히는 방법을 애용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이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 7) 一然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三國遺事』를 저술하였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崔南善, 上記解題 p. 20)

일찌기 한번 보았는데, 둘의 높이가 5·6尺이나 되었고, 둘레는 겨우 세 발이
있다. 우뚝히 섰는데 위는 편편하였다.(卷3 塔像篇 迦葉佛安坐石條)

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佛國寺에서 그리 멀지 않은 甘山寺에도 그는
직접 가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古文書도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 景宗 때 敬順王 金傳
에 대한 冊尙父譜를 들 수가 있다.(卷2 紀異篇 金傳大王條) 이 冊尙父譜는 原
文을 처음부터 끝의 署名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베껴놓았으며, 서명을
한 것과 안한 것, 또 官職만 있고 이름이 없는 경우까지도 밝혀놓고 있다.
비록 이 古文書 자체는 다시 대할 길이 없겠지만 이 인용만으로써도 훌륭한
고문서 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고문서 중에는 많은 寺誌
들이 포함되며, 그 밖에 都田帳 같은 관청의 공문서도 있다.⁸⁾

一然이 三國遺事에 鄉傳과 같은 민간전승기록을 전하여준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鄉傳은 바로 민중의 견해를 말하여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法興王이 異次頓을 사형에 처한 것을 흔히 法興王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鄉傳은,

鬪이 王命이라 하여 工事를 일으켜 걸을 세울 뜻을 전하였는데, 群臣이 와서
諫하였으므로 王은 이에 鬪에게 책임지어 怒하고 王命을 거짓 전했다는 이유로
처형하였다.(卷3 興法篇 原宗興法·厭鬪滅身條)

고 했다. 이를 보면 마치 法興王이 異次頓에게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을 풍
겨주고 있다. 이것은 鄉傳이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면이고, 또 아마
이것이 진실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一然은 현대 역사가들의 사료수집을 연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자기의 論據를 굳게 뒷받침해 주려고 한 데서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짧은 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三國遺事』의 저술을 위하여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하여 준다. 一然은 여러 사료를 널리 수집하여 그들 사료
사이에 개재하는 차이점을 가리고 나아가서 자기의 考證을 첨가함으로써
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8) 一然의 사료수집 노력에 대하여 閔泳珪씨는 『우리 後學으로 하여금 놀라 마
지 않는 점은 그 천저한 實證癖이다』라고 하였다.(上記解題 p. 88)

3. 歷史的 位置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三國遺事』의 특색은 저자 一然이 어떤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를 저술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一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典據에 의하여 뒷받침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遺事>라는 겸손한 冊題로 인하여 이를 한낱 한가한 餘業의 성과로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이다.⁹⁾ 적어도 『三國遺事』의 저술에 필요한 사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었을 노력만도 적은 일이 아니었을 것임은, 그런 작업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三國遺事』를 통하여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점은 『三國遺事』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三國遺事』는 『三國史記』가 합리적인 사실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실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물론 『三國遺事』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합리적 서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된 관심은 초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들에 놓여 있었다. 가령 太宗武烈王에 관한 대목에서,

王이 하루에 쌀 3말과 평 9마리를 먹더니, 庚申年에 百濟를 멸한 뒤에는 점심을 그만두고 단지 朝夕뿐이었는데, 그러나 계산하면 하루에 쌀 6말, 술 6말, 평 10마리였다. (卷1 紀異篇 太宗春秋公條)

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따위이다. 더욱 재미있는 경우는 金庾信에 관한 기사이다. 『三國史記』에는 金庾信의 傳記가 무려 3卷에 걸쳐 있고, 그 대부분이 통일을 위한 戰爭記事로 메워져 있는 데 대해서, 『三國遺事』에는 다만,

(가) 가족 관계와 출생에 대한 것.

(나) 三山 女神과의 관계.

9) 崔南善씨는 『三國遺事는 普覺國尊에게 있어서의 도리어 一餘業이오 一閑事였겠지』라고 하였다. (上記解題 p. 8) 그러나 閔泳珪씨는 『이것은 一然禪師 80명생의 精進이 이 한 책의 著作에 集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上記解題, p. 86)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찬동하는 바이다.

(다) 財買夫人과 松花房에 대한 이야기.

(라) 興武大王 追封과 그의 무덤의 所在地.

만이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분량의 대부분을 三山 女神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이 점을 一然 자신은 神異를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는 一然의 다음과 같은 말로써 알 수 있다.

그런즉 三國의 始祖가 모두 神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겠는가. 이 神異가 諸篇의 처음에 실린 까닭은 그 뜻이 여기에 있다.(卷1 紀異篇序)

이에 의하면 紀異라는 篇名은 <神異를 기록한다>는 뜻인 것임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비단 紀異篇만이 아니라 『三國遺事』 전체가 바로 이러한 방침 아래 저술되었던 것이다.

『三國遺事』는 王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의 9편으로 되어 있다.¹⁰⁾ 이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가) 年表인 王曆과, (나) 역사적인 神異事를 적은 紀異와, (다) 그 밖의 불교 관계 기사를 실은 7편과로 3大分할 수가 있다. 만일 王曆이 원래 독립된 一冊이던 것이 『三國遺事』의 일편으로 첨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¹¹⁾ 결국 (나)와 (다)의 둘로 兩大分되는 셈이다. 그런데 紀異篇과 같이 그 내용에 대한 풀이를 저자 스스로가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앙을 복돋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불교 관계 기사들도 바로 神異의 기록 그것인 것이다. 異次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함으로써 여러 기적을 낳게 하여 불교를 공인하게 하였다.(卷3 興法篇 原宗興法·厭闕滅身條) 惠宿이 죽어서 村人들이 耳覘 동쪽에 장사를 하였는데, 고개 서쪽으로부터 오던 사람도 중에 惠宿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卷4 義解篇 二惠同廳條) 또 郁面이라는 女婢는 신앙의 힘에 의하여 산 육신의 몸으로 지붕을 뚫고 하늘을 날아 西方淨土로 往生하였다.(卷5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條) 金大城은 자기집 備田을 法會에 布施함으로써 가난한 집으로부터 宰相家에 轉生할 수가 있었다.(卷5 孝善篇 大城孝二世父母條)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는 (다) 부분이 곧 神異의 기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일 수

10) 現存 中宗年間 版本의 혼란된 篇目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崔南善씨였다.(上記解題 pp. 2~4)

11) 末松保和, 「三國遺事解說」(學智院東洋文化研究所本, 1964, p. 2) 및 金東旭, 「三國遺事」(韓國의名著, 1969, p. 142) 참조.

가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 『三國遺事』 전체가 神異의 기록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三國遺事』의 기사 내용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神異란 바로 비합리적인 사실들을 말한다. 따라서 『三國遺事』는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표방하고 나선 역사서였다고 하겠다.¹²⁾ 그러면 一然이 이렇게 神異만을 적고자 한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儒敎의 합리주의 史觀에 대한 비판의 뜻이 있었다고 믿는다.¹³⁾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 儒敎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이 풍미하게 된다.¹⁴⁾ 그리고 이 사관은 특히 官撰史書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풍조를 이루게 되었다.¹⁵⁾ 이러한 풍조에 대항하고 나선 것이 『三國遺事』였던 것이다. 一然이 유교의 합리주의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그가.

12) 李萬烈씨는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을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上記速記錄 p. 178) 씨의 의견에 따르면 神異의 수록을 정면으로 표방하고 나선 『三國遺事』는 역사서가 아닌 게 된다. 씨는 나아가서 『우린 가 아는 한 역사서는 합리주의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하였으나(同上), 역사학의 초보적 入門書인 베른하임의 『史學概論』에 의하면, 說話의 역사를 역사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속에는 호머의 詩도 포함되고 있다.(趙濶淸역 『史學概論』, 1954, pp. 10~11). 씨는 또 『三國遺事』가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표방한 역사서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三國遺事를 보면, 三國遺事는 정말 그런 목적으로 씌어졌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도 하였다.(同上) 뜻이 분명치가 않지만, 아마 씨는 『三國遺事』를 합리주의적인 정신 위에 저술된 역사서라고 생각한 모양인 듯도 하다. 그러나 本文에서 누누히 이에 언급하였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논거를 제시해 주기 전에는 다만 默而不答일 수밖에 없겠다.

13) 『三國遺事』는 『三國史記』와 서로 반발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를 補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高柄羽·李家源 양씨에 의해 제시되었다.(上記速記錄 p. 172 및 pp. 176~177) 그러나 一然이 『三國史記』에 만족해하고 이에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면, 굳이 『三國遺事』를 저술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했겠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저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一然은 神異한 일들을 보완한 셈이 된다. 필자는 따라서 一然이 『三國史記』에 불만해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一然의 『三國史記』에 대한 비판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一然은 『三國史記』가 합리적인 사실만을 취한 점에 불만스러워했던 것이라고 믿는다.

14) 儒敎의 史觀을 도덕적 합리주의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을 근대의 합리주의와 구별하여 그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한 때문이다. 現世 중심의 儒敎史觀이 불교의 신앙 중심의 사관보다 합리주의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교는 도덕적인 善惡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道德至上主義의 입장에서 있다. 이러한 도덕이상주의에서는 그 합리주의가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를 도덕적 합리주의라고 부른 것이다.

대체로 옛날 聖인이 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仁義로 敎를 베푸는 데 있어서 怪力亂神은 말하지 않는 바였다. 그러나 帝王이 장차 일어나려 함에 있어서는 符命을 받고 圖錄을 받아 받드시 남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 후에야 능히 大變을 타고 大器를 쥐어 大業을 이룰 수 있었다.(卷1 紀異篇 序)

라고 하여,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써 알 수가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論語』에 나오는 孔子의 말이며, 이 정신은 후대의 유교에 일관된 정신이었다.

이 동일한 입장은 孝善篇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서 一然은 현실적으로 孝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면에서 善하기도 해야, 즉 孝善雙美해야 來世에 가서도 孝할 수 있는 것이 되며, 그럼으로써 가장 지극한 孝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說하고 있다. 그러므로 眞定師가 가난한 홀어머니를 버리고 入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不孝가 아니었다. 眞定師는 義湘에게 부탁하여 華嚴經을 講하게 함으로써 그 어머니를 天上界에 轉生하게 하였던 것이다.(卷5 孝善篇 眞定師孝善雙美條)¹⁵⁾ 이 같은 불교적 입장은 분명히 유교의 現世主義·合理主義에 비판적이라고 할밖에 없다. 이 같은 입장이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첫째 주제인 일반적일 역사적 神異에 대한 기록은 요컨대 한국 고대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이 아닌 天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古朝鮮의 시조인 檀君王儉이 天上에 계신 桓因의 손자였다든가(卷1 紀異篇 古朝鮮條), 신라 護國三寶의 하나인 玉帶는 天使가 주었다든가(卷1 紀異篇 天賜玉帶條), 또 통일신라의 평화의 상징인 萬波息笛이 文武王의 변신인 海龍과 金庾信의 후신인 天神이 합심하여 만들어준 것이었다든가(卷2 紀異篇 萬波息笛條) 한 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5) 『書經』이나 『詩經』을 孔子의 刪定으로 보고, 거기에 실려 있는 신화적 사실들을 예로 들어서 李家源씨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上記速記錄 p. 176) 그러나 이 주장에는 좀처럼 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詩經』이나 『書經』은 孔子의 편찬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으며, 또 儒敎精神에 투철한 내용의 책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책에는 孔子 이전의 신화·전설이나 민요들이 수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後代의 儒學者들에 의해서도 종종 비판되어 왔었다.

16) 『三國遺事』의 孝善篇은 一然이 그의 어머니한테 효도를 했기 때문에 이룬 한 篇目으로 넣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崔南善, 上記解題 p. 7) 필자는 本文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一然是 한국사의 기원이 더하여 古朝鮮→魏滿朝鮮→馬韓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그것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고 또 神異한 것임을 자랑스러이 기술하였다.¹⁷⁾ 元의 정치적 간섭이 불가피했던 당시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제인 불교적 神異에 대한 서술은 요컨대 신앙의 옹호를 위한 것이었다. 불교 관계 기록은 우선 양적으로도 전체의 반을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교적 잘 정리된 佛敎文化史인 것이다.¹⁸⁾ 興法篇은 바로 불교의 受容過程의 歷史이며, 塔像篇은 일종의 佛敎美術資料集이며, 義解篇은 高僧傳이며, 神呪篇은 密敎史이며, 感通篇은 신앙상의 奇蹟記이며, 避隱篇은 신앙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孝善篇은 신앙과 가정과의 문제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한 것은 모두 현실세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앙의 세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세계는 釋迦佛 이전의 迦葉佛과도 연결되고, 혹은 또 未來佛인 彌勒佛과도 연결되는 세계였다.¹⁹⁾

이같이 神異의 說話로써 합리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설화들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三國遺事』의 서술이 典據를 중요시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²⁰⁾ 『三國遺事』의 세계는 그러므로 신화와 전설의 세계이며, 신앙의 세계였다.²¹⁾ 이 세계는 당시의 史學界가 이루어 놓은 합리주의에의 접근이라는 진진적인 자세와는 다른 復古的인 것이었다. 史學史的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성격을 지닌 『三國遺事』의 위치는 이같이

- 17) 이러한 古代史의 체계는 이 이후 우리나라의 通史에 오랜동안 적용되어 왔다. 가령 『東國通鑑』이나 『東史綱目』이 모두 그러하였다.
- 18) 閔泳珪가 이미 興法 이하 孝善에 이르기까지의 下半部는 그대로 三國의 佛敎史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上記解題 p. 88)
- 19) 閔泳珪씨는 이러한 경향을 『過度할이만큼 강인하게 모든 문제를 本地垂迹思想으로 귀결』시킨 것이라고 하였다.(上記解題 p. 88). 또 金泰永씨는 이 점을 佛國土思想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上記論文 p. 88).
- 20) 이러한 一然의 태도는 韓末 儒學者들의 西洋 新學問과 대결할 때의 태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한다. 예컨대 張志淵의 「儒學辯」을 보면, 그는 儒敎에 대한 비판에 답하여, 周禮·說文 등등의 여러 古典을 인용하여 진정한 儒學은 비판받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韋庵文稿 pp. 216~217)
- 21) 金泰永씨는 이 神異한 사실들이 自國의 歷史를 진개시키온 큰 推進力이었다고 인식하였음에 틀림없을 것 같다』고 하고, 그러한 인식은 『貴族政權』에 대한 反撥』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 더 『外勢의 壓制에 대한 民族的인 抵抗意識의 소산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上記論文 p. 94) 이러한 해석은 참신한 새 견해로서 주목된다.

규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4. 現代的 意義

『三國遺事』가 史書로서 지니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검토해본 결과, 그가 지니는 歷史的인 위치를 大勢에 역행하는 復古적인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三國遺事』가 지니는 現代적 意義까지가 덜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는 반대인 것이다. 그러면 『三國遺事』가 현대 한국사학에서 지니는 意義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三國遺事』가 지니는 史料的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典據를 밝혀주었음으로 해서 그러하다. 전거를 제시한 인용문은 一然이 이를 자의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三國史記』와는 달리 소박한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서 傳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무한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²²⁾ 더구나 인용된 많은 原典들이 남아 있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다만 一然은 반드시 原史料의 全文을 충실히 인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가령 甘山寺造像記는 원문의 몇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誤讀으로 인한 많은 잘못이 있다. 또 古朝鮮條에 인용된 舊唐書 裴矩傳의 글도 완전히 문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인용문의 字句의 變脫에 별로 개의치 않음이 『三國史記』와 取材標準이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²³⁾ 분명히 一然의 인용문에는 자구의 탈락과 변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탈락이거나 오독이나 筆寫의 잘못에 의한 것이지, 내용의 변경은 아니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다 나올 때, 『三國遺事』가 흔히 原史料의 본 모습을 더 많이 전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三國遺事』이전의 原史料名의 제시는 그 사료적 가치를 크게 더해주는 것이다.

둘째로는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이다. 이것은 近代史學도 마찬가지로 짙어지고 있던 과제였다. 근대사학은 정치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인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

22) 이 점은 이미 崔南善씨에 의하여 강조되었다.(上記解題 p. 9 및 p. 13)

23) 崔南善, 上記解題 (pp. 21~22)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政治史觀의 극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폭넓은 문화사적 측면을 제시해준 『三國遺事』는, 특히 文化史家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國遺事』에는 풍부한 神話의 세계, 民俗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三國遺事』를 읽고 있으면 마치 한국 원시문화의 숲을 헤쳐가는 듯한 기분을 누구나 맛보게 된다. 檀君神話를 비롯한 이들 신화와 민속의 세계는 근대사학의 寶庫와 같이 비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三國遺事』에서는 또 문학적 측면이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三國史記』에는 단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는 鄕歌가 10여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三國遺事』가 佛教文化史로서 독자적 지위를 갖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였다. 그러므로 도덕의 善惡과 정치의 興亡과를 직결시켜 생각하는 좁은 안목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이란 점에서 『三國遺事』와 近代史學은 軌를 같이하는 것이고, 따라서 『三國遺事』는 근대사학에서 높이 평가되었다.²⁴⁾

세째로는 『三國遺事』가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은 곧 그것이 민주적 자주성의 표시였다. 더구나 우리나라 역사의 시발점을 古朝鮮에 두고, 檀君王儉의 建國神話를 적음으로써 한국의 역사가 天과 연결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衛氏朝鮮·馬韓을 거쳐 三國으로 연결되는 民族史 발전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민족적인 '자각이 커가면서, 拜外的인 경향을 띤 중국 중심의 史觀에 대한 비판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도 근대사학과 『三國遺事』는 軌를 같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대사학에서 『三國遺事』가 높이 평가되게 되었다.

『三國遺事』에 대한 이와 같은 근대사학의 평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을 잊을 수는 없다. 우선 史料的 가치는 그것이 애초에 史料集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一然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에 속한다. 만일 原史料들이 망실되지

24) 이러한 점에서 특히 낭만적인 近代史學에서 『三國遺事』가 높이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崔南善씨라고 하겠다. 씨는 『三國遺事』가 전체 그대로 우리의 뜨거운 感謝에 値』한다고 하였고(上記解題 p. 7), 또 『三國遺事』는 朝鮮古代史의 最高源泉이며 一大百科典林으로 一然의 功은 西方의 헤로도투스에도 比할 것』이라고도 하였으며(同上 p. 11), 나아가서 『만일 本史와 遺事의 양자 중에 어느 하나밖에를 지니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면, 대부분이 漢土의 文籍을引入한 것이요 그 약간의 國傳이란 것은 名與實을 대개 漢化한 三國史記를 내어놓고, 斷落하고 錯雜하고 粗陋하고 詭誕할망경 一贅이라도 本味를 전하는 三國遺事를 잡을 것이 固當하다』고까지 하였다.(同上 p. 10)

않고 남아 있다고 한다면, 사료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성질의 것이다. 가령 甘山寺의 두 造像銘은 實物이 남아 있어서 훨씬 자세하고 정확한 原文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略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判讀조차 섞여 있는 『三國遺事』의 인용문은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또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이란 점에서 『三國遺事』와 근대사학이 軌를 같이하지만, 그렇다고 『三國遺事』에서 제시된 神異史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가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神異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새로이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反面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사학에서 『三國遺事』가 지니는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기가 힘들 것이다.

5. 끝맺는 말

필자는 위에서 주로 史學史的인 관점에서 『三國遺事』를 생각하여 보았다. 보는 사람의 現在的 입장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서 『三國遺事』를 평가하는 것에 필자는 비판적이었다. 그 결과 『三國遺事』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의를 구분하여 고찰하게 되었다. 本稿의 제 3장과 제 4장이 각기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이 역사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역사가들에 의해서조차 종종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실로 서글픈 일이다.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작업이 本稿의 제 2장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史學史的 조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제 3장과 제 4장에서 각기 언급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三國遺事』가 史學史에서 지니는 역사적 위치가 전진적이기보다는 복고적이었지만, 현대에서 지니는 의의는 도리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어쨌든 『三國遺事』도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소산이요 또 현재에도 그 생명이 살아 있는 하나의 史書인 만큼, 그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이 아울러 학문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필자: 西江大 史學科 교수. 『韓國史新論』 『民族과 歷史』 『高麗兵制史研究』 등의 저서 있음.